

### 천하를 뒤흔드는 조선의 강대한 힘

####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본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걱정 토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를 본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단장 드미트리 코스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열병식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상최대이며 위풍당당하고 장엄한것이다.

특히 장쾌한 동음을 울리며 련이어 나아가는 《북극성》 탄도탄을 비롯한 위력한 전략무기들을 보면서 무진막강한 조선의 군사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강력한 힘과 첨단군사기술을 소유한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투대오들과 무장장비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있을것이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대표단 단장 유하 끼역씨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준비를 원만히 갖추고 있다.

무적의 칠갑대오들과 번득이는 강철포신들에는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만만한 투지가 비껴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벌리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있지만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한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조선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위핀 굽마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일성각하의 탄생 105돐을 조선에 와서 경축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직성과 규율성이 대단히 강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군계 뚫어졌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베스는 조선의 일심단결이 왜 그토록 세인을 놀래우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의해 담보되기때문에 강한것이라고 격찬하였다.

파키스탄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 자베드 안사리는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시위대오를 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조선의 기상을 느끼었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원천이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 위대한 힘을 보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은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정녕 김정은각하는 자주와 정의의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시다.

서유림주체사상신봉자대표단 단장 안드레아스 앙스트림은 이렇듯 규모가 크고 특색있는 열병식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사람을 경탄시킨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거행된 행사들에서 조선인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았다.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그분의 위인상에 완전히 감복되었다.

렐레비존과 출판물을 통하여 그이의 위인적천품에 대하여 많이 보고 들어왔지만 직접 보우게 되니 흥분된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국가지도자, 젊으신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합단 단원 리주학은 기세충천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열병대오는 불수록 장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 세계는 우리 조국의 강인담대한 배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깨달았을것이다.

천하제일장군을 높이 모신 무적강군이 있어 승리의 신심

은 백배해진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행로에 끝없이 매어리친 열병의 함성, 발구름소리는 최후승리의 희생이 되어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재중동포 신흥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강국, 우리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장엄한 화폭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위력을 지닌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힘은 무한대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합단 단원 조두성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을 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오를 보니 우리의 존엄을 건드릴자 세상에 없다는 배심으로 마음이 든든해진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이 천하를 뒤흔들며 전세계를 격동시켰다고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준공

홀륭히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이 행복한 야영생활을 시작할수 있게 되었다.

야영소에는 김정은애국주의교양실과 2개 호동의 야영각, 식당, 해수욕장, 회관, 체육관, 운동장 등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그르하게 갖추어져있다.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었다. 신정남 강원도당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행복의 선경들이 련이어 솟아나는 북반은 강원땅에 도안의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영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사랑의 궁전, 만복의 보금자리가 일떠섬으

로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당적인 기풍도, 전국의 본보기도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공격전기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강원땅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무역집배 《자력》호 출항식 진행

무역집배 《자력》호 출항식이 17일 평남배수리공장에서 진행되었다.

강관관 룬해운상의 출항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자력》호가 출항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해운업발전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나감으로써

원수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반드시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출항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어 무역집배 《자력》호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배고동소리높이 먼바다로 떠났다.

본사기자



## 선물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결경기가 극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에 진입할수 있는 특수작전집단들과 전략핵타격수단들을 전개해놓고 기동중이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전단까지 항로를 바꾸어 조선반도수역으로 긴급출동시키었다. 또한 추가로 핵동력항공모함 《니미즈》호 타격단도 들어밀고있다.

미국은 《F-35B》비행기를 공화국의 수뇌부를 노린 《특수작전》용으로 선정하고 유사시 미군특수부대들을 태우고 75m이하의 저공으로 침투하는 훈련, 특수부대용 수송기 《C-130》을 동원하여 가테나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소속 특수부대를 실어나르는 실전훈련도 벌려놓았다. 미국의 군사적도발광기는 점점 도를 넘어서고있다.

얼마전에 저들이 감행한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유도무기타격에 대해서는 공화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세지》니 워니 하고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공화국을 놀래워보려 하고있다.

지금 미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관계자들도 입만 벌리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단독군사행동에 대해 떠들며 대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공화국의 핵능력고도화에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리성을 잃고 북침선제공격 등 별의별 위험천만한 행동을 다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비참한 운명을 겪고있는 이라크나 리비아, 언어맞고서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는 수리아처럼 공화국을 대한다면 그처럼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공화국은 미국의 날로 위험천만해지는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즉시 호된 불벼락을 들썩울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하여 각종 타격수단들도 다 갖추고있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것이 공화국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이고 자세이다.

공화국은 얼마전 온 세계가 지

켜보는 태양절경축 열병식광장에 서도 미국의 날로 로팔화되는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즉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지금 공화국무력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은 남조선과 일본의 미군기지들과 팔도를 비롯한 태평양전구안의 미군기지를, 미국본토를 핵조준경안에 집어넣고 적대세력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침예한 조미대결사를 령정하게 돌이켜보고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이 잘못된 선택안을 부여잡고 움쩍하기만 하면 공화국의 무력은 이미 천명한대로 도발자들에게 후회할사이도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안기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친미굴종세력들도 미국에 빌붙어 동족대결의 길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수치스러운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 조선 미국의 도발에 초강경대응할것이라고 강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의지를 천명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14일과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쓰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트럼프행정부의 전쟁광중이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날강도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도발책동을 초강경대응으로 짓부셔버릴것이라

고 밝혔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통화통신은 다 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선택한 대조선정책은 첫째로 는 그 누구와 함께 고강도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는것이며 둘째로는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전개한다는것이며 셋째로는 조선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는것이라고 지

적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걸어 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조선식의 적중 초강경대응이 그 즉시 에 따라지게 될것이다,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여 비참한 운명을 겪고 있는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조선을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미국은 제정신을 가지 고 문제해결의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로씨스까야 가제따》, 《5통로》TV방송을 비롯한 로씨야의 30여개 주요 언론들, 중국중앙TV방송, 이란의 일나통신,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NDTV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민주광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북조선 미국의 도발책동을 초강경대응으로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열병식 행사는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수준에 올려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에 닿을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애국의 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뜻깊은 정치행사였다.

이번 열병식이 거행된 4월 15일 평양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였지만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제재와 압살소동에 광분해오던 미국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그대로 북침선제공격 기도를 드러내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전역에서 강행되고있는 《독수리》합동전쟁연

# 4월의 행성에 올려퍼진 조선의 선언

습으로도 성취지 않아 전술핵 무기를 상시적으로 전개한다.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적행동에 나선다 하며 지금도 어리석게 높아내고있다.

지난 6일에는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이며 강도적인 순항유도 무기타격을 감행하고 그것이 조선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세지》로 된다고 회답계 광고해나섰다. 침략열, 전쟁열에 들뜬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에 진입할수 있는 특수작전집단들과 전략적인 수중, 해상, 공중 핵타격수단들을 전개해놓고도 모자라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전단을 조선반도수역으로 다시 파견한다 어쩌다 하며 부산을 괴워했다.

세계가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다며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 남조선에서 《4월전쟁위기》설이 대대적으로 나돌고있다.

이런 속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하여 내외가 더욱 주목한 열병식이였다.

이번 열병식은 시작부터 그 독특한 양상으로 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종대, 정규무력건설시기 종대, 조국해방전쟁시기 종대가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그 뒤를 이어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근위부대종대 등이 조국수호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자랑스러운 군기들을 앞세우고 행진해갔다.

전투복을 착용한 특수작전종대에도 일단 싸움이 터지면 백두산호랑이의 발톱으로 온 남녘땅을 거머쥐고 적들의 급소마다에 번개처럼 비수를 들이박을것이라는 멸적의 의지가 서려있었다.

열병종대들의 맨 앞장에서는 각급 군부대들을 이끄는 소장, 중장 등의 군사칭호를 가진 지휘관들이 씩씩하게 행진하여 지난 시기의 열병식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펼쳐주었다.

말그대로 전쟁이 나면 남진

하는 대오의 맨앞장에 서서 대오를 이끌며 승전의 기발들을 휘날려가리라는 인민군대의 기상과 의지가 열병종대마다에서 질게 풍긴 뜻깊은 열병식이였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을 과시하며 기계화종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지나가 열병식의 분위기를 최대로 고조시키였다.

정연하게 대렬을 짓고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무쇠철마들과 자행평곡사도, 주체포, 방사포들이며 우리 식의 위력한 로켓종대들의 장쾌한 동음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 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임의의 공간에서 침략과 도발의 아성을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한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것이다. 특히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는 침략세력도 단매에 요정낼수 있게 고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의 시위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터치게 하고 힘과 용기가 샘솟

게 했다.

외신들과 남조선언론들도 《이번 열병식에서 3종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등장》, 《원거리를 타격할수 있는 7종의 전략무기들이 처음으로 공개》, 《북이 자체개발한 주체무기를 모두 동원한것은 핵경제병진로선의 정당성의 과시》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한마디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태양절경축열병식은 전쟁의 불몽치를 들고 달려드는 미국에 보내는 조선의 단호한 대답이라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비참한 운명을 겪고있는 이라크나 리비아, 언어맞고서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는 수리아가 아니라는 것, 미국이 조선민족이 바라지 않는 전쟁을 강요한다면 주저 없이 맞받아나가 단매에 짓부시고 조국통일성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겠다는 멸적의 선언이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광장을 지나간 열병종대들의 씩씩한 발구름과 기계화부대들의 굉음속에 전세계에 울

려퍼진것이다.

이번 경축행사의 축하연설에서도 강조된바와 같이 공화국은 평화에호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공화국은 우리 식의 모든 선택안들을 다 가지고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준비가 되어있다.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즉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적으로 대응할것이다.》고 한 조선의 경고를 미국은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무모한 선택타격으로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조선전쟁과는 대비도 되지 않을것이다. 미국본토도 단숨에 불바다에 잠길수 있는 최강의 억제력을 보유한 공화국을 건드리려는것은 미국의 어리석은 자살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선택을 바로 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빈말을 모르는 나라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뜻깊은 태양절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과 평양시군중시위가 남긴 여운은 크다.

4월의 경축광장은 세상에 유 일무이한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장엄한 역사적화폭이였다.

광장이 떠나갈 듯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웨치며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인민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몸이 그대로 육탄, 방탄벽이 되어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보위하고 정의의 반미대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할 굳센 의지가 어려여있었다.

그 군대에 그 인민이다. 과학자, 교원, 보건일군, 체육인, 예술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군중이 《일심단결》, 《만리마속도, 강원도정진》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용용히 광장을 누비는 모습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온갖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조선의 숨결을 느끼게 하였다.

경축행사를 본 신홍섭재중동포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강국, 우리 조국에서 펼쳐진 장엄한 화폭이며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힘은 무한대하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위편 곱파, 파키스탄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 자베드 안싸리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며 조선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실감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원천이다.》라고 소감을

퍼력하였다. 일심단결, 혼연일체는 조선의 모습이며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천하지대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길이라고 하시였다. 령도자는 인민존중, 인민중시의 인덕정치를 펴고 인민은 령도자의 뜻과 정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일심단결은 공화국이 승리하는 힘의 원천이며 기적의 비결이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완공된 려명거리도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힘에 의하여 솟아난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고 건설자들은 방대한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보다 두배이상 되는 려명거리를 불과 아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중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인 일심단결에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만리마시대의 기적적성공과 승리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참모습이 있다. 지난해 자연의 대재앙을 당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이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으로 천지개벽된것도 령도자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철리리 마음의 기동으로 세우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산악같이 펼쳐나선데 있는것이다.

핵무기의 폭발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무한대하다.

본사기자 리 설

## 21세기 진보적세계는 혁명의 성지 만경대고향집을 우러릅니다

유럽지역선군위원회

인류사의 갈피를 보면 영웅호걸들이 많으나 21세기 진보적정당들과 인사들이 가장 열렬하게 추앙, 호모하는 혁명의 스승은 만고절세의 애국자, 반제자주사회주의자, 세계적사상리론가 항일해방의 구세주, 이민위천 사랑의 태양!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동지입니다

조선의 인민들은 말했습니다 —비겁한자아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세계는 가슴 조이며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조선을 신군혁명사상으로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 20세기 고난의 험산준령, 수만리 길을 불철주야 눈보라 비바람 가리지 않고 넘고 넘고 또 넘으시는 김정일장군님!

아메리카제국의 악랄한 경제봉쇄, 금융제재역경을 자력자강의 CNC 공작기기로 혁명적전환을 일으킨 사회주의주체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의 복락을 위한 인민행렬차에서 애석하게 심장의 고통을 멈춘 선군혁명의 아버이를 함박눈속에 애통해하며 영결하는 조선인민들의 통곡에 세상의 민중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라와 정치체제는 달라도 정의와 자주는 한마음 5대양 6대주 크고작은 나라들에서 결성되는 《4.15태양절》 경축준비위원회 지구촌 문화예술의 올림픽, 진보적인류의 공동축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반제자주평화단체들의 정치사회과학부문별 연구성과를 정의자주세계에 발표하는 《4월의 봄》 학문올림픽에 놀라 리성을 잃고 미쳐날뛰는 아메리카광대의 춤을 보았습니다

백두선군혁명을 목숨으로 계승한 새세대 지도자 21세기 위인중의 위인 김정원동지! 자주자유세계의 량심과 정의는 김정원조선의 정의와 진리를 풍랑 사나운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안전한 진로로 항해하게 하는 등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으로 정의했습니다

선행사상과 철학이 해명해내지 못한 사회력사의 주인공제, 인간의 운명문제도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과학적으로 밝혀 인류에게 생의 빛을 준 위대한 주체사상의 나라 조선과 돈이 사랑이고 돈을 인간의 운명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본주의 아메리카제국의 사상적존재리유의 운명을 놓고 피할수 없는 한판승부를 세계가 지켜보고있습니다 정의와 부정의의 세기적결산을 주시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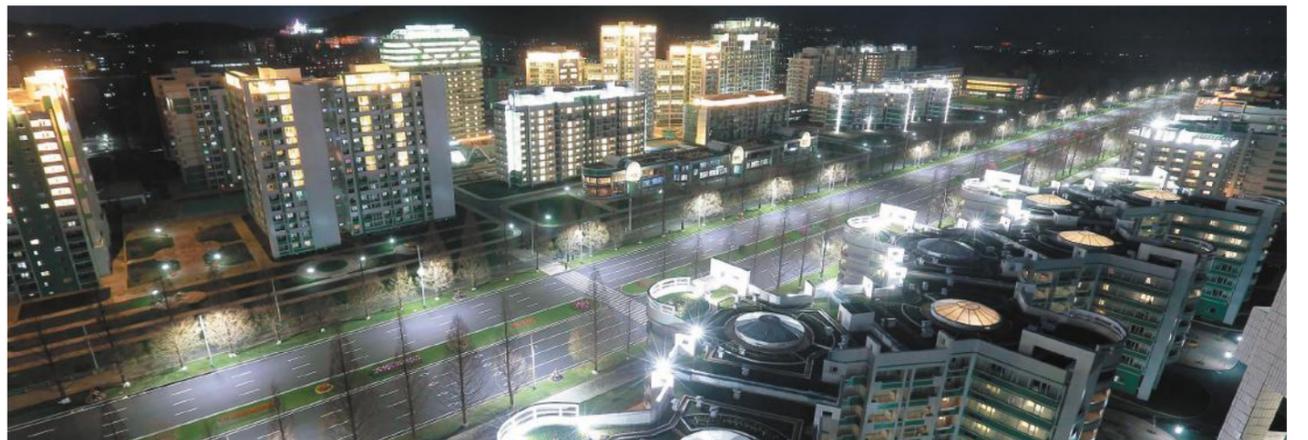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을 경축하는 제5차 《4.15태양절》 인민예술축전은 신군혁명의 만리마를 탄 조선인민들이 황포탄 《돈 제국》의 착각과 망상을 백전백승의 병진로선창점으로 산산이 요절내는 승리의 인민예술축전입니다

사회주의조선의 백전백승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조국 북변땅에 이룩한 사회주의선경, 창조적기적에 이어 온 세상에 사회주의조선의 문화문명의 미래를 보란듯이 뽐내

초고층살림집들이 들어선 려명거리를 올려다보며 아메리카제국을 향해 소리높이 부르는 조선인민들의 대합창!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조선의 인민들은 김정원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세상만민들은 아메리카제국의 패배를 듣고있습니다

5대양 6대주 통일겨레와 반제정의인사들이 조선과 숨결을 같이하는 반제자주인사들이 주체106년 심장으로 읊고 듣는 만고불변의 역사적진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생을 《이민위천》 혁명의 길에 바친 대원수님들! 21세기 진보적세계는 혁명의 성지 만경대고향집을 우러릅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고향집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 최 후 승 리 의 려 명 이 밝 아 오 는 거 리



# 이역의 하늘아래 굽이치는 그리움의 마음, 따르는 마음

##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의 길림에서는 태양절을 경축하는 재중동포들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4월 15일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재중동포들은 길림옥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올리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이어 길림옥문중학교의 뜻깊은 교정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보고대회에는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평사와 총평사관성원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 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 조직 대표들, 길림시조선공민들과 길림성조선족진흥총회 오장권회장을 비롯한 동포들, 동북3성에 상주하고있는 조국의 일군들과 가족들, 길림성인민정부의사관공실 주임과 길림성공안국출입경관리국 국장, 길림옥문중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각계층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길림옥문중학교에서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에 받들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천대와 압박을 속명으로 여기며 시대박으로 멀리 밀려나있던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

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사상을 안겨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서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인

류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의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하면서 재중조선인들은 또 한반도의 질세의 위인을 모신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이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나갈 충정의 결의에 넘쳐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한 애국충정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결의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보고대회에 이어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사진 및 도서전시회, 태양절경축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글 및 사진 심용석



### 태양절경축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 진행

태양절경축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이 13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최수봉 부의장, 김연주국장, 료녕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함께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 나갈 굳은 결의로 충만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결의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라는 제목으로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길림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고보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이곳 길림에도 위대한 애국의 발자취를 새겨오시었다.

하기에 수령님동상이 높이 모셔진 이곳 길림옥문중학교로는 중국의 각지에서 사는 많은 동포들이 해마다 모여든다. 우리는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산다는 생각으로 하여 마치 조국 땅에서 사는 심정이다. 이 긍지, 이 자랑을 안고 나는 지금까지 해외동포사업에 전심하였다.

나는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길림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재중조선공민의 본분을 다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벌려 각계층 동포들속에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는 데 나의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



### 태양절경축 《4월의 봄 음악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경축 《4월의 봄 음악회》가 13일 중국 연길에서 진행되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연변가무단국장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연변학림악단의 단장이며 예술감독인 박학림이 지휘하는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는 녀성독창 《내

마음 내 조국》, 《노래하자 금강산》,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민속기악합주 《혁명가요련곡》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 신음하던 우리 나라를 세계 만방에 빛내여주시고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4월의 봄명절이지만 올해의 태양절은 우리 재중동포들로 하여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더욱 가슴설레이게 한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었기에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 조국의 튼성변영에 디딤돌이 되고저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우리 재중동포들의 신뢰와 경모심은 어제와 래일도 변함이 없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의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신념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고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어져있어도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가있다.

내가 려명거리건설과 북부피해지역, 조선장

애자보호련맹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지원사업을 하고 단동민공원무역유한공사를 세운것도 어머니 조국과 숭결을 같이하고 우리 민족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앞으로 김일성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송영철

# 온 거리를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어

오늘 우리 겨레는 내외분렬주의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회견의 69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 69돐을 맞이한 지금 우리 겨레는 한없이 송고한 덕망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온 거리를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며 민족대단결의 새 역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해방후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 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

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련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회합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련석회의의 경험과 업적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날로 우습해질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 자주,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1970년대에 두렵게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파렬구를 내며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들이 추진되고 1980년대에 분렬사상 처음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뜻깊게 상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각계층의 폭넓은 접촉과 래왕,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적극화되게 되었다.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대성황리에 열린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을 망라한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조직되고 1992년 8월에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이 결성되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민족을 하나의 통일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불휴의 헌

신과 로고에 의하여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고조되었다.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바다같이 넓은 도량과 햇빛같은 인덕에 온넋이 끌리어 김구, 김규식, 문익환, 최척진, 최홍희, 문선명을 비롯한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으며 오

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요 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3월에 단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을 받들어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철 의지의 일대 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대토로를 열어 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현시기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었다. 민족자

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올해의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아가 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침을 주시었다.

사상도 령도풍모도 덕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진두에서 계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시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과 전통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실현함으로써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고영식



총대의 강약에 국가와 인민의 생사 존망이 달려있다. 강한 총대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이 담보된다.

군력이자 국력이다.

우리 공화국은 총대의 위력으로 강대한 국가이다.

총대중시를 민족자주위업수행의 근본으로 내세우시고 자위적무장력을 건설하고 이끄신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무적필승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고있다.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지금으로부터 여든다섯해전 백두밀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교 항일대전의 력사적인 총성을 울리시었다.

그때로부터 인민군대의 80여

년 력사는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여온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평군술로 인민군대를 이끄시어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련전련승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첫걸음을 댄 청소년 인민군대가 발톱까지 무장한 오악한 일제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피수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판가리성전에서 련전련승한것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이다. 력량상 대비할수 없이 우세한 령강들과 맞서 유적전에서나 정규전에서도, 총포성없는 장기간의 대결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기록한 인민군대의 무훈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군력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놓

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어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는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다. 인민군대가 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군으로 장성강화되고 공화국이 핵보유국으로 되어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불멸불휴의 선군장정으로 인민군대의 부대들과 초소들, 국방공업기지들을 찾오시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포악무도한 적대세

력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강도와 인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유린당하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져놓으신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며 반미대결전과 강국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있다. 출중한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지략, 천변만화하는 전략전술과 주체전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군술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용맹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그 위력이 더욱 백배해지게 되었다. 백두밀림에서 울린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오늘은 적대세력의 멸망을 선고하는 공화국의 장쾌한 수소

탄폭음으로 이어지고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퇴성으로 메아리치고 있는것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예로부터 군대는 소비집단이며 백성이 군대를 먹여살리는것은 국가사회생활의 법칙처럼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자기 행로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에는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의 신세만을 지는 군대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면모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불타던 전호가에 뿌리내린 아름다리 거목들과 재더미를 가지고 솟아난 비날론 생산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 대규모의 갑문들과 사회주의땅담게 변모된 공화국의 협동벌들, 인민의 문명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룡라인민유원지, 인민극장 등 맑고맑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창조에서도 강군인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여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85성상은 절세위인들의 령군업적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령장들을 모시어 강군이 있다는 진리를 자기 행로에 새긴 수호자, 창조자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무진막강한 군력을 다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련전련승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것이다.

신기복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 경축

### 총련중앙사진전시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경축 총련중앙사진전시회가 15일 도요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건자이며 제일동포들의 삶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 평생 총련과 함께 계시며 제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또한 일찍부터 어버이수령님과 주체혁명의 길에 함께 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 제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총련의 애국총정의 본래를 곳곳이 고수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다들었다.

본사기자

## 《꽃피는 4월의 봄》 음악회

### 미국 뉴욕에서 진행

《꽃피는 4월의 봄》 음악회가 8일 미국 뉴욕의 머킨콘서트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일꾼들과 가족들, 유엔주재 로씨야, 벨라루시 등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가족들, 뉴욕과 시카고지역 재미동포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우록교향악단 단장인 재미동포 리

준무가 지휘하는 음악회에서는 관현악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준마처녀》를 비롯한 우리 나라 음악들과 외국음악들이 연주되었다.

관람자들은 관현악연주가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를 치면서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본사기자



# 《우산》을 들고 《비》를 맞는 남조선

얼마전 미국 부대통령이 남조선을 행각하고 돌아갔다.

그는 체류중 서울 삼성동에 있는 총리관저를 찾아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하였다. 그날은 비가 내려 황교안이 직접 우산을 들고 마중나가 미국 부대통령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뉴시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이 한우산을 썼다.》고 자랑삼아 전하였다. 마치 미국과 남조선이 《한우산》을 쓰고있는 《긴밀한 동맹》임을 과시하려는듯 황교안은 상전을 만난 자리에서 《공고한 《한》 미간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 뭐니하며 갖은 아양을 떨었다. 그날 우연히 한우산밑에

서 비를 그었지만 남이 보기엔 그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꼴볼견이었다.

지금까지 남조선과 미국이 언제한번 《우산》을 같이 써본적이 있었던가. 말은 그럴듯하게 《동맹》이니, 《보호》니 떠들어왔지만 《비》를 막아주는 《우산》을 쳐든것은 남조선이었고 그 《우산》을 혼자 써온것은 미국이라 해야 옳을것이다. 남조선은 미국을 위해 《우산》만 펼쳐놓고 저는 오가는 위험한 《비》를 흠뻑 다 맞곤 하였다.

수십년전 미국이 월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에도 상전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사병들을 파병하였다가 미군의 대포박신세, 개죽음시킨것은 력사에 생동히 기록되어있다.

지금의 《싸드》 배치놀음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친미보수패거리들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조선에 퍼 놓으려고 하는 《싸드》라는 《우산》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핵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발생하고 전쟁이 터진다면 그 작고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제 《싸드》로는 떨어지는 포탄소나기, 핵비를 도저히 막을수 없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싸드》는 서울도 지켜줄수 없고 남조선전체도 보호해줄수 없는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오직 미국으로 날아갈 로케트, 핵탄들을 막기 위한 미용 《우산》일뿐이다.

남조선은 오히려 그 《우산》때문에 주변나라들의 미사일공격목표가 되고 대국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재난적인

1차타격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핵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온갖 위협을 다 무릅쓰고 《싸드》라는 우산을 퍼들려고 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행위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것인가.

지금 미국이 조선반도에 위협천만한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을 놓고도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다. 미국은 《동맹》이라고 추켜세우는 남조선의 의사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적이익을 위해서라면 조선반도에서 전쟁도 서슴없이 도발할수 있다는것이 지금 누구나 느끼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 모험적인 《선제타격》이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고 남조선의 온 땅덩어리가 참혹한 재난터로 화하고 남녘인민들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라도 미국은 상관없다는 자세이다. 이것이 제국주의강도배인 미국의 본색이다.

《동맹》이라는 《우산》은 헤쳐보면 미국만을 위한 《우산》인것이다.

그 《우산》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운명을 맡겼자 녹아날것은 친미보수패거리들이고 재난을 당할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핵무기론도 모자라 이제...

그런데도 미국은 《슈퍼터게획》에 대해 그 누구의 《생화학전에 대응하는 체계》라느니, 《방어와 보호》를 위한 체계라느니 뭐니하며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뻘뻘스럽게 놀아내고있다.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를 침략과 인간살육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여겨온 미국은 그 실현을 위한 위협천만한 생화학무기실험

남조선에서 미국의 생화학전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어 사람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지난 5일 미국은 그 무슨 《슈퍼터게획》의 추진을 위한 장비들을 부산항에 끌어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도 모자라 생화학전쟁의 불구름까지 들쭉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슈퍼터게획》이라는것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생화학무기들로 다른 나라들, 특히는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의 일환이리는데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생화학무기실험장뿐 아니라 거대한 오염지대로 변해가고있다.

미군은 통산기지에서만 도 지난 25년간 84건의 기름류출사건을 발생시켜 수많은 농경지들과 주민

을 제 나라방도 아닌 남조선에서 진행하여왔다.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하여 벌려온 반인륜적인 세균전만행들은 영원히 지울수 없는 최악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최근년간에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몰래 끌어들이 물의를 일으킨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슈퍼터게획》에 따라 통산과 오산, 평택을 비롯한 남조선각지의 미군기지에 탄저균, 페스트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과 비루스를 끌어들이 생물무기실험을 대대적으로 벌려왔다고 한다.

남조선을 실험장으로 삼아 생화학무기를 완성하고 그것으로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민족살살을 노린 살인마들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미국의 위협천만한 생화학전책동에 적극 동조해나서는 남조선호전파들의 쓸개빠진 망동이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호전파들은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개발을 정책화한데 기초하여 그 연구와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왔으며 미국으로부터 신형생화학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지금 남조선땅은 미국의 생화학무기실험장뿐 아니라 거대한 오염지대로 변해가고있다.

미군은 통산기지에서만 도 지난 25년간 84건의 기름류출사건을 발생시켜 수많은 농경지들과 주민

지대들을 황폐화시켰으며 통산지역의 지하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2011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들에서 석유류에 의한 오염은 허용한계의 101배, 중금속 오염은 152배로 나타나고 미군기지들에 기름을 공급하던 452km의 거리에 묻혀있는 송유관주변지역의 오염도는 허용수치의 10~20배를 훨씬 넘었다고 한다.

미군기지들에서 독성물질들을 련이어 류출시키고있는것은 남조선땅을 독성물폐기처리장으로 황폐화시키려는 용납 못할 최악이다.

그러나 미군은 군사기지에서 대기과 토지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죄나 보상은커녕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통산이 기름법석의 땅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속에서 살았다》, 《오염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해온 미군이 막대한 정화비용까지 남조선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남녘땅을 생화학무기실험장으로, 환경오염지대로 만든 살인마, 침략자들이며 남조선보수패당은 갈데 없는 반역집단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김연희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운운하는 《대북선제타격설》이 《4월전쟁위기설》, 《북북격설》로 이어지면서 전쟁공포증이 확대되고있다. 한다.

바빠맞은 박근혜잔당들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느니,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느니 떠들며 민심을 달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문제는 보수세력들이 미국에 의해 조장된 《4월전쟁위기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사코 부정하면서 《북핵위협》이니, 《도발》이니 동족을 절고 《안보위기》만은 계속 내들리고 있다는데 있다.

참으로 고약한 심보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진짜 《안보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박근혜잔당들이 운운하는 《안보위기》니, 《안보불안》이니 하는것은 현실에 대한 파렴치한 부정정거기에 다시금 말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 《안보위기》, 《안보불안》을 몰아오는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남조선정국의 혼란을 기회로 《키리졸브》, 《독수리》 핵전쟁연습을 그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공화국의 《핵위협》을 떠들며 《핵선제타격》을 떠들고 핵동력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본토의 핵전력자산을 조선반도주변에

# 《안보위기》를 떠드는 대결파들의 속심

급파하여 《4월위기설》을 몰아왔다.

공화국의 정의의 핵은 남조선이 아니라 대조선 적대시정책실현과 아시안지배전략을 위한 미국의 침략적핵을 겨냥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도적이 제발 저러한다는 격으로 공화국의 자주권, 자위력행사를 《위협》이라고 떠드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해온 미국의 침략적핵은 《안보용》, 《방어용》이고 공화국의 자위적핵역력은 《위협》이라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 미국이 강요한 1950년 조선전쟁을 통해 충분히 겪어보았다.

지금의 전쟁은 그때와는 대비할수 없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30~50년이 필요했다면 세번째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세계가 100년, 200년간의 원시상태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만일에 공화국이 정의의 핵을 보유하고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최근에 아시아의 어느 주변국가에 감행한 미사일공격보다 더한 핵공격을 조선반도에 퍼부었을 것이다.

그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제일 먼저, 제일 큰 참화를 당할것은 남조선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도 성주의 《싸드》철폐투쟁, 합동군사훈련과 《선제타격설》로 조성된 전쟁위기를 반대하는 등의 반미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의 리익이 아니다.》, 《〈한〉 반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가 우선이다.》고 하면서 《양키고 홈》(Yankee Go Home), 《아메리카노》(America No)의 함성을 높이 울리고있다.

력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남조선에 도래한 《안보위기》, 《안보불안》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해소의 방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잔당들은 미국의 침략의 핵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동족의 정의의 핵을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안보위기》, 《안보불안》을 떠들고있다.

부연하건대 남조선에 닥친 《안보위기》, 《안보불안》의 현실적근원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이다.

남조선의 《안보위기》, 《안보불안》은 박근혜잔당들이 사대굴종과

동족대결로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있는 흉살이기도 하다.

박근혜의 파면, 구속과 함께 그 잔당들은 미국에 더욱 매달리고 서로 야합하고있다.

치욕의 《한미동맹》 구걸이 그 하나이다.

원체 미국의 사전에는 저들의 안보라는 개념만 있을뿐 그 어떤 나라, 어떤 《동맹국》의 안보파위는 없다.

미국의 리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동맹국》의 안보는 저들의 애완관계의 목숨만 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박근혜잔당들은 회세의 악녀에 대한 탄핵이 기정사실로 되자 제일먼저 《안보위기》를 부르짖으며 미국이 저들까지 버릴가봐 《한미동맹강화》를 애걸복걸하였다.

《싸드》배치강행은 박근혜잔당들이 떠드는 《안보위기》론의 허상을 발가놓는 실체이다.

미국이 인정하는것처럼 과학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이 안된 《싸드》로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된 공화국의 자위적핵역력을 막을수 없다.

그것을 한사코 남조선에 배치하겠다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주변국들을 시야에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위기》의 구실밑에 끌어들이는 《싸드》론은 하여 가뜩이나 핵전쟁위험속에 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국적불명의 미사일공격의 목표로 되어 《안보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그외에도 북남관계를 회북불능의 질식상태에 빠뜨린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것이나, 당장은 박근혜의 부역자, 공범자로서 징벌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후광을 업어보자는 단말마적인 몸부림이다.

지어는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안보관》을 걸고들며 《좌파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비난하며 《안보》문제를 《대선》용으로 내흔들고있다.

보내바와 같이 박근혜잔당들의 《안보위기》론은 철두철미 사대굴종적, 매국배종적, 반통일적인 《론리》로 엮어진 어불성설, 황당무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왜 명을 다한 악녀의 잔당들이 《안보위기》론을 내들리며 발악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당장은 박근혜의 부역자, 공범자로서 징벌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후광을 업어보자는 단말마적인 몸부림이다.

또 보수 《정권》의 부활을 위한 명석을 깔아보자는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친미사대 《정권》, 동족대결 《정권》, 부정부패 《정권》을 연장하려는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을 세워 새 정치, 새 생활을 꾸리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이루려는 남조선민심은 결코 박근혜잔당들과 보수세력의 망동을 묵과하지 않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을 전쟁 《정권》으로 락인하고 진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것은 미국과 박근혜잔당들이라고 하면서 《미군가고 평화오라!》, 《〈싸드〉는 미국으로!》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투쟁의 기세를 올리고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수 없는것처럼 시대착오적인 꾀변이고 시대와 민심에 거역하는 박근혜잔당의 《안보위기》론도 회세의 악녀의 종말처럼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히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죄수가 어떻게 된다

최근 남조선 역도년의 행악질에 서울구치소 소장은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과 토요일은 물론 면회가 금지된 일요일에까지 출근하여 면을 만나주었다고 한다.

범죄자가 더럽다고 하면 깨끗이 청소해주고 오라 가라 하면 두말없이 설 기며 오고가는 서울구치소측의 행동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감시자인지 아니면 범죄자의 수족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들과 사회 각계에서 《박근혜는 범우에 군림하던 버릇을 못 고쳤다.》,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박근혜와 사법당국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온 것은 당연하다. 바빠맞은 검찰과 서울구치소가 《도배작업은 구치소 자체의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라느니, 《특별대우는 없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민심의 분노만을 더욱더 자극시킬 뿐이다.

박근혜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특별혜음은 이것만이 아니다. 서울구치소의 규정에는 일반면회는 하루에 10분정도씩 한 번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면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박근혜에게는 어느 날에는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변호사를 잠시 만나 공공이를 하도록 특별혜를 주고있으며 특히

한편 부패보수세력들이 벌써부터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 떠드는가 하면 검찰이라는 것이 《세월》호 침몰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주요 혐의를 반영하지 않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여론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감옥에 처박혀 숨쉬는 미이라신세가 된 역도년의 눈치를 보며 특별혜를 배풀어주고 그 진상이 날날이 드러난 범죄사실까지 축소는 폐시키며 비호해나서는 것은 일간방송이 들만 할 수 있는 황당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재판에 기소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박근혜를 비호하는 보수당국의 망동은 그들이 앞에서는 민심의 규탄이 두려워 역도년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고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다. 박근혜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라는 초불민심의 요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이다.

송명수

# 재집권실현을 위한 보수세력들의 무분별한 발악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정치세력들이 선거경쟁에 돌입하였다.

가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지난시기 집권여당이었던 보수세력들도 이번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으며 독선과 불통정치를 일삼다 탄핵당할 뻔한 박근혜에게 추종하며 온갖 반역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은 사실상 박근혜의 공범자, 부역자로서 탄핵심판에 따른 이번 선거에 머리를 내밀 자격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저들이 저지른 죄과를 시치미를 떼듯 모르쇠하며 후보들을 내세워 《대선》경쟁에 나선 것은 그야말로 창피도 체면도 모르는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와 같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정치오물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나 이겨 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재집권야망실현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종북좌파》이니 뭐니 하는 《색갈》 딱지를 붙이며 비방증상에 열을 올리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작대기라도 필요하다.》고 떠벌이며 후보단일화를 이루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패보수세력들은 《보수가 재집권하지 못할바에는 중도(정권) 이 탄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세력들 사이에 해기를 박는 유치한 놀음도 벌리고 있다.

박근혜탄핵사태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보수세력들이 《대선》을 앞두고 벌리는 이러한 놀음들은 그들이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정권》교체를 막고 어떻게 해서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1960년의 4.19인민봉기와 1979년의 10월인민항쟁의 열매들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강패들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힌 뼈저린 교훈은 진보개혁세력들이 련대하고 단합하여 이번 《대선》에서 사대와 매국만을 일삼던 온갖 《적폐》세력들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초불민심의 요구도 진보개혁세력들이 련대하고 단합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두고두고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단평 가마귀 백로 된다?

우리 속담에 오래 살면 머느리얼굴에 수염나는 것을 본다 고 했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노는 꼴이 속담 그대로이다.

리승만독재가 거꾸러진 4월인민봉기의 날을 맞으며 19일 《자유한국당》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느니, 《4.19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싹을 틔웠다.》느니 하고 낮간지러운 소리를 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발자취를 뒤돌아 찾아가보면 그 뿌리가 리승만과 《자유당》이라는 것은 웬간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전 《새누리당》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만신창이 되자 살아나 보려고 바꾸어낸 당의 간판도 원조인 《자유당》과 할애비당쯤 되는 《신한국당》의 당명을 합쳐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지었으리라.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리승만독재를 무너뜨린 4.19봉기에 대해 《경의》니, 《민주주의의 싹》이니 했으니 머느리얼굴에 수염났다는 것만 큼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의 징벌에서 벗어나보겠다고 《박근혜혼적지우기》를 하더니 이제는 족보까지 통채로 바꾸려는 것인가. 그러나 변신술이 아무리 능하다 한들 체질적속성은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선조들이 어렵게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는 극심한 안보위기에 위협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에 앞장서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에서 나온 이 소리가 《썩은 정치 갈아보지.》, 《독재(정권) 타도.》, 《통일만이 살길이다.》고 웨치던 4.19의 정신, 오늘의 초불민심을 심히 우롱하는 망발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독재 《정권》을 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패보수세력들이 이 케케묵은 《안보위기》라령을 또다시 늘어놓는 것은 동족대결과 미국과의 복침전쟁소동강화로 남조선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소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쓸개 빠진 자들, 부패당을 쓸어버려야 남조선에 새 정치가 오고 평화도 깃드는 것이다.

리정남

# 박근혜의 악폐를 완전히 청산하자 대전에서 17차 시국집회 진행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와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가 15일 《세월》호참사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박근혜역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공범자구속, 악폐청산을 요구하여 대전에서 17차 시국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내려가고 《세월》호가 올라왔어도 참사의 증거들은 아직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온 우병우를 구속할 것을 주장하고 그를 구속하지 않은 피리검찰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재 《정권》이 다름 이름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결정권은 초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를 퇴진, 구속시킨 1차 초불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 박근혜악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정권》, 민주와 평등, 평화와 자주통일정책을 가진 《정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2차 초불혁명의 승리를 안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내에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한편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는 박근혜의 악폐청산과 6대긴급과제, 개혁립법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 죽을 때까지 《종북》라령

막다른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공화국을 걸고드는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거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남조선보수세력의 상투적수법이며 체질화된 악습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구속사태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저들의 잔명을 부지할 출로를 《종북》소동에서 찾으려 하며 비렬한 음모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극우보수패당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이 《종북》세력의 정치공작이 빚어낸 란동》과 《북의 지령을 받는 친북좌파세력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초불투쟁참가자들은 《북의 배후조종을 받는 종북세력》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총결속하여 《친북좌파》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광기를 부리고 있다.

실로 어이없고 비렬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그 누구의 《배후조종》이나 《정치공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썩고 병든 사회를 끝까지 부지해 보려던 보수패당이 스스로 빚어낸 참극이다. 이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4년전 남조선보수패당은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가 집권하면 《제2의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나고 파란된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박정희향수》를 뿌려대며 민심을 기만하고 온갖 부정협잡과 음모적인 방법으로 끝끝내 박근혜를 《대통령》자로 앉히었다.

때를 만난 박근혜는 기회를 놓칠세라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놀음을 미친듯이 벌였는가 하면 파쇼폭압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완전히 전락시켰으며 외세굴종과 사대매국행위로 겨레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들뜨였다.

남조선전역에 타오른 거대한 초불바다는 이에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으며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각성된 인민대중의 단호한 징벌이었다.

그런데도 보수패당이 박근혜의 파멸을 《북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인 동시에 초불을 들었던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몰아대



#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는 사랑, 과자조각들

## \* 제2차 사랑, 과자조각전시회 진행 \*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제2차 사랑, 과자조각 전시회가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청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수십개의 식료공장들과 급양봉사단 위틀에서 선발된 120여명의 기술자들과 요리사들이 창작한 2860여점의 사랑조각들과 740여점의 과자조각들이 출품되었다.

사랑, 과자를 리용하여 창작형상한 만화영화의 주인공들과 동물들, 건축물, 식물, 자연풍경, 과일, 곡식 등 다양한 주제의 식용색, 감상적가치가 있는 사랑, 과자조각들은 기발한 착상과 예술적형상, 재치있는 기교로 하여 훌륭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였다.

전시회장에 들어서면 감쪽한 동물들의 음악회를 형상한 사랑조각이 있는가 하면 아이, 어른 할것없이 누구나 즐겨 보는 만화영화 《소년장수》에서 나오는 주인공 쇠매와 부정인물인 호비, 고구려남아의 기상인양 3개의 화살을 동시에 날리는 고주몽을 형상한 조각들도 볼수 있었다.

피리치며 움직이는 금잉어와 칠갑상어를 형상한 사랑조각들도 어찌나 생동하게 형상했는지 금시라도 살아움직이는것만 같았다.

특히 남편과 안해가 서로 권하며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을 형상한 사랑조각은 화목한 가정의 정취가 한껏 어려와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모든 단위들에서 출품된 작품들이 하나같이 생동하고 이채로와 여기저

기에서 참관자들의 감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강남식료공장에서 출품한 《곰네집》과 청년호텔에서 출품한 《결음마》, 금성식료공장에서 출품한 《려명거리 초고층아파트》, 경흥관에서 출품한 《결혼식상》, 해맞이식당에서 출품한 《공작새》, 평양호텔에서 출품한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출품한 《포도나무》들도 특색있었다.

특히 청류관의 정순희, 장수향요리사들이 출품한

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후덥게 받아안았다. 전시회기간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한 요리사들 사이에 경협교환도 진행되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않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완성하는 나날에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사랑, 과자조각을 창작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

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인민사랑을 심장으로 새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사랑, 과자조각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집체적노력과 합평회를 거쳐 완성된 작품들이다.》...

태양절을 맞으며 성황리에 열린 제2차 사랑, 과자조각전시회는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문명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풍년가을의 강냉이조각은 얼마나 신동한지 진짜 강냉이인줄 알고 강냉이를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옥류관전시대에는 대상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형예술적으로 형상한 수십점의 사랑, 과자조각들이 전시되었는데 예술품가치가 높은 경지에 올라선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실례《종합과일》과 《이채어경》 조각들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인민들에게 과일과 물고기풍족히 먹이시려 그토록 마음



## 휴식일의 흥취나는 민족오락경기

얼마전 일요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성1동 5인민반을 찾은 기자의 눈앞에 흥겨운 웃놀이경기가 펼쳐졌다. 《모야!》, 《걸이야!》, 《잡았다!》, 《이야!》, 《잡았다!》, 《잡았다!》 하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모여앉아 웃가락을 던지며 승부를 부리는 여성들의 모습은 볼수록 흥취를 돋구었다. 두 팀으로 나뉘어 승부를 가르는 웃놀이경기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긴장되게 하였다.

2층 3호집 머느리가 련속 《모》를 세번이나 내서 《참, 손이 걸구만.》, 《오늘 손에다 꼴을 바르고 요술을 부리는게 아니냐?》 하는 칭찬 절반, 시샘 절반 섞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다른 팀의 3층 1호집 할머니가 《모》에 《개》를 내서 말을 잡는 통에 상대팀 선수들의 얼굴이 대번에 울상이 되었다.

그런가하면 웃방에서 세대주들의 장기경기가 구경꾼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장훈 받아라!》 《아차, 한번만 물리세. 딱 한번만!》 아우워 무릎을 치고 기뻐서 손뼉을 치며 온 아빠트기 떠나갈듯 흥성인 휴식날의 다양한 민속유희오락경기였다. 상대편 말에 잡혀 다 이었던 웃놀이판을 끝맺지 못한 아쉬움속에 발을 동동 구르는가 하면 통쾌한 수로 상대편 《공》을 눌러놓는 순간 환성을 터치는 즐거움과 랑만에 넘친 모습들... 예로부터 웃놀이는 우리 겨레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민속놀이의 하나로 되어왔다. 우리 민족은 세나라시기 이전부터 웃놀이를 즐겨왔다. 하지만 웃놀이가 지금처럼 전인민적인 대중오락으로 어디서나 활기있게 진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웃놀이는 그 형식과 놀이방법, 도구가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고 시간과 장소, 참가인원과 특정한 선수가 따로 없어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서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이다.

앓은석동산, 앓은두석동산과 같이 일단 한곳에 모여진 말잡단을 함부로 잡을수 없게 한 놀이방법은 하나의 힘보다 다수의 뭉친 힘이 훨씬 크고 강하다는 생활의 리치를 말없이 깨우쳐주고 있다.

흥겨움과 긴장감, 짜릿한 희열과 랑패감이 엇바뀌는 민속오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것이다.

... 웃놀이구경에 심취되어 시간가는줄 모르는 기자에게 김옥실인민반장은 이렇게 말했다.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이렇게 모여앉아 민속놀이를 하면서 함께 즐기니 인민반이 화목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곳 인민반사람들뿐이라.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즐겁고 유쾌한 민속놀이풍경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 4월에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

- 4월에는 비타민결핍증과 스트레스, 춘곤증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비타민과 광물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 콩  
콩은 혈당수치를 정상화하고 독성분을 몸밖으로 내보내며 피부와 머리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소화로 돕는다. 콩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 커피  
커피는 소화가 잘되므로 배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소화기 및 간, 콩팥질환을 치료할 때와 불면증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면 좋다. 커피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고 머리칼 및 피부영양크림의 주성분들중 하나로서 미용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 강냉이쌀  
강냉이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세척하여 지나친 몸무게의 초래를 방지한다. 강냉이쌀은 헤로운 물질들을 몸밖으로 내보내는것으로 간주되고있다. 강냉이쌀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이발상태가 좋아지고 심장혈관 및 소화기질환의 발생위험성이 낮아진다.

## 사화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3)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역기는 너무도 분하고 억이 막혀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몸부림만 쳤다. 고려왕조가 망하자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해야 한다는 배불숭유시대적풍조가 경천사에도 세차게 몰아치였다. 그 바람에 경천사는 서서히 조락되어 없어지고 13층석탑만이 홀로 온갖 풍파다 겪으며 남게 되었다.

그후 님수같이 흐르는 세월속에 16세기 말엽에 이르자 이 땅에는 섬나라족발이들에 의한 임진왜란이 터졌다. 그때 역기의 선조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심혈이 어려있는 석탑이나마 지켜내려고 속도에서 이곳 담팔로 이사를 왔다.

그러한 석탑을 밀들까지 모조리 두는 다 드고서도 적을 맞혔으니 조상들 앞에 무슨 면목이 있으랴.

(아, 평산의병대에 들어가 놀들과 싸우다가 잘못된 아버지만 살아있었어

도 이런 큰 변은 당하지 않는건데... 아! 원통하구나! 이 족발이 오랑캐놈들아!)

이날 역기는 점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손자를 찾아오는 할아버지에 의하여 아드름드리 나리나루에서 풀러날수 있었다.

석탑을 종적없이 도착 맞힌 자리를 보고 병이 더 심해져 할아버지는 이를 낚 날이 밝기 바쁘게 역기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당부했다.

《너는 이제 당장 시대에 있는 한영서원을 찾아 가서 도움을 청하여라. 하늘땅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석탑을 찾아와야 한다. 선조의 자취가 숨배여있는 석탑을 찾기 전에는 돌아설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되어 탑팔을 나선 역기는 만나는 사람들에 물어가면서 한낱 무렵에 개성에 있는 한영서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영서원은 그리스도교 사립중학교인데 몇해전 비밀리에 반일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노래들을 수집출판한 《한영서원창가집사건》으로 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진 반일의식이 강한 학교였다.

이 사건으로 왜놈들에게 체포되어 악행을 당했던 학감 리만규를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은 역기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 몹시 분개해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왜놈들이 개성부의 사방에서 왕릉이며 고분들을 닦치는대로 파헤치고 문화재들을 파괴탈탈하기어 어떻게 하면 그놈들을 징벌할가 벌러오던 학생들은 경천사 13층석탑까지 대낮에 강도질해갔다는 말을 듣자 당장에 한양에 있는 왜놈들의 《총독부》로 쳐들어가자고 옥유했다.

이러는 그들에게 이견 보통의 도난사건이 아닌 만치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학감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분들을 파헤치는 왜놈들의 죄행을 (총독부)에 항의도 해보고 시위도 했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되고말았다. 간악한 왜놈들이 총칼을 휘두르며 발뺎을 하는만치 이런 군복에 쪽두리모자를 뒤집어쓴 왜병들, 낫설은 하오리따위를 걸친 왜것들의 따각따각하는 계다 작소리...



한영서원학생들은 여기저기에 알아보고서야 리상재의 집을 찾아낼수 있었다. 리만규학감은 이전부터 안면이 깊은 리상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써서 역기에게 주면서 그에게 한양에 친척이 있는 두명의 학생을 붙여주었다. 이리하여 역기는 난생

를 할적부터 리상재의 밑에서 반일애국운동에 참가하고있었다. 리상재는 그날부터 만사를 물리치고 경천사석탑도단사건해명에 달라붙었다. 그는 역기에게 너는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 인인데다 피해자이니만치 왜놈들의 눈에 띄이면 안된다고 하면서 석탑의 행처를 알아낼 때까지 자기 집에 쫓겨 말고 눌러있으라고 하였다.

지내볼수록 역기에게는 리상재가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여겨졌다. 한영서원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벌린바 있는 리상재는 의정부 총무국장까지 지낸 거물이어서는 장안이 다 안다고 하기에 그를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무서운 대감인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러나 정작 만나고보니 그는 수 많은 양복에 증철모를 쓰고 물낱은 가죽가방을 들고 다니는 환갑이 훨씬 넘는 할아버지였다.

일흔을 가까이 한 리상재는 량부모를 다 잃은 역기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면서 밤이면 사랑방 자기 결에서 자게 하였다.

이 나날이 역기에게는 정말로 꿈같은 생활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시골에

서는 멀건 풀죽이 사람이 먹는 음식의 전부인줄로만 알았는데 리상재네집에서는 하루 세끼 매번 하얀 흰쌀이 섞인 조밥에 따른한 무우젓국과 여러가지 반찬까지 성의껏 차려주곤 하였다. 옷도 시골에서 입고은 단별 토스레옷을 벗겨내고 새까만 세루직학생복을 입혀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얻어 먹고 잘 얻어입어도 석탑에 대한 근심걱정이 하루도 떠나지 않은 역기였다.

(파연 언젠면 석탑을 찾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담팔로 돌아갈수 있을까.)

《역기야, 늦어서 안됐구나.》

언제 돌아왔는지 뒤에 한영서원 학생들을 나란히 세운 리상재가 다정스레 불러주는 목소리에 대문앞에 쭈그리고앉아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한숨짓던 역기는 별뻥 일어나 《선생님!》 하고 그의 품에 와락 안기었다.

《오나, 네 정상이 말이 아니로다. 하지만 너무 걱정말아.》

리상재는 아직도 해묵은 주림이 가서지지 않은 역기의 얼굴을 가슴아프게 들여다보았다.